

신한옥개념의 농어촌경관주택 표준도 연구

Study of Standard Design for Residential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이관직 / 정희원,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ck, KIRA

글을 시작하며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 모두가 몸과 생활은 도시에 두고 있지만 산과 들과 시내와 점점이 집들이 어우러진 우리의 시골 혹은 농촌은 아직도 우리마음속에 언젠가 돌아 갈 곳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런 농촌은 마음속에서만 있을 뿐 아름다운 곳,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관심에서는 멀어지고 개발과 빈 땅은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모습은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샌드위치 패널 집과 공장과 창고와 집이나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저기 놓여있고, 초가집을 지붕만 알록달록한 슬레이트와 철판지붕으로 개량한 집들이 우리의 농촌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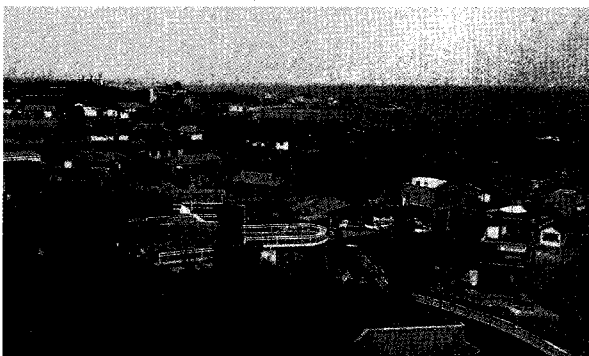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표준주택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에 걸쳐 농어촌 주택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면서 농어

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을 다시 추진한 결과이다. 한국농어촌 공사는 199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등 6차례에 걸쳐 51종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농촌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주택의 계량화와 농어촌 마을의 경관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 과정에서 농촌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주택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그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민원 내용 요약

- 1) 표준주택 활용절차 불편, 자료 미비, 종합적인 안내책자 필요 (고령, 김포, 여주, 인천, 영천, 달성, 전남)
- 2) 건물형태와 공간구성이 낙후되어 이용률 저조(상주, 경남)
- 3) 평수별 기본구조(조적, RC, 패널, 목조 등)의 다양성 요구(상주)
- 4) 농업용 주택의 공간 구성 필요(문경)
 - 예) 1층 농사용 창고, 2층 주택 또는 별도의 창고 공간 확보
- 5) 농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주말이용)의 가변적 이용에 대한 요구(경산)
- 6)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적 저에너지 설계요구(청농, 영양, 달성)
- 7) 거주인원감소에 따른 100㎡ 내외로 규모 축소(담양)
- 8) 공사비 자료의 현실적인 내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보완(담양)
- 9) 인허가시 추가적 전문가의 필요에 다른 불편
- 10) 표준도의 일부 변용 적용에 따른 문제점(곡성)



〈그림 1〉 주문진

11) 1개방을 구들 난방 할수 있는 구조(청송, 영양)

또한 본 연구의 설계자로서 민원 내용의 기본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전문가적인 추가적 분석을 통해서 2009년의 농어촌경관주택의 새로운 방안을 설정했다. 본 연구는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우송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8년 수행된 연구단계에서 농촌 주택의 수요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우송대학교의 이해욱 교수의 책임으로 수행된 연구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집분석을 하고 군집에 따른 거주생활유형을 도출했다.

생활 유형 시나리오

생활 유형1	사회적 특성	귀농예정/ 대졸/ 40~49세/ 가족수(4명)/ 비농업/ 개인 및 가정생활형
	공간적 요구	38평형/ 방 4개/ 화장실 2개소/ 실외 창고/ 앞·뒤마당/ 가족실 거실중심 생활공간
	희망 공사비	약 1억 1천만원
생활 유형2	사회적 특성	귀농거주 16년/ 고졸/ 50~59세/ 가족수(4명) 비농업/ 전원생활·주말거주지/ 취미펜션사업/ 가정 및 문화생활형
	공간적 요구	30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소/ 실내외 창고/ 앞·뒤마당/ 안방과 거실중심 생활공간/ 넓은 부엌 및 거실
	희망 공사비	약 9천만원
생활 유형3	사회적 특성	원래거주 31년/ 중졸/ 60~64세/ 가족수(2명)/ 농업/ 개인생활형
	공간적 요구	21평형/ 방 2개/ 화장실 1개소/ 창고나 축사 필요없음/ 앞마당/ 안방중심 생활공간/ 좁은 부엌 및 거실
	희망 공사비	약 9천만원
생활 유형4	사회적 특성	원래거주 35년/ 중졸/ 65~70세/ 가족수(3명)/ 농업/ 가정 생활형
	공간적 요구	26평형/ 방 2~3개/ 화장실 1개소/ 실외창고/ 앞마당/ 거실중심 생활공간/ 넓은 부엌 및 거실
	희망 공사비	약 8천만원

최종적인 4개의 생활유형 그룹을 농촌 주택으로 건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 설계의 기본 자료가 되었지만 농촌경관 주택의 설계자의 입장에서 수요분석을 통한 방식만을 가지고 건축적 유형을 결정하는 데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요구가 주택 건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하지만, 주거 건축의 형태와 농촌경관에 대해서 보다 한국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만들려는 노력에는 긴 안목의 역사적이고 건축 본질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를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되 건축적인 연구와 관점을 첨부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농촌공사에서 제시한 2009년 농어촌표준설계도 개발의 목적은

- 1) 아름답고 개선된 농촌주택 기본제시
- 2) 전통과 현대 주거의 융합
- 3) 행정 간소화와 경제적 품질 확보
- 4) 농촌경관 정비 도모
- 5) 경관특성의 농촌 마을조성

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설계자로서 농촌을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용역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농촌주택은 무엇인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으로 시행된 무조건적인 슬레이트 지붕으로의 개조와 마구잡이의 개발사업, 계획, 조절 없는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의 건설로 우리의 농촌의 경관은 파헤해질 대로 파헤쳐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번의 농촌주택 표준도의 작성과 보급사업도 농촌 경관의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 비해 최근까지 일본의 농촌경관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을 지속하고 표준화된 보급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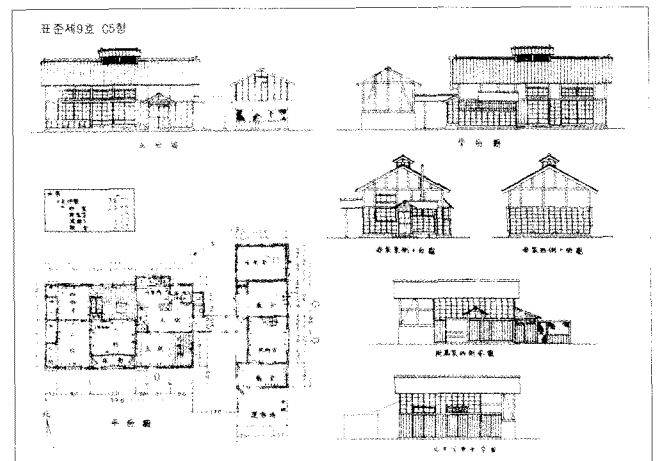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농촌 풍경

또한 경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일본은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통해서 도시와 마을을 시각적이고 미적 가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들에 부딪혔다.

경관개념을 이해하고 주변과 단위 주택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집합으로서의 마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급을 통해서 점차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표준설계도 작성의 제한된 용역의 범위로는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여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됐다.

기본 개념과 정책, 경제적 보급을 위한 표준화, 공업화, 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연결, 사용자의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설계에 제 반영하는 문제, 친환경적인 접근 등등, 많은 문제는 자문과 심의를 받는 동안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그러한 모든 문제가 설계적인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단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이 용역의 설계 방향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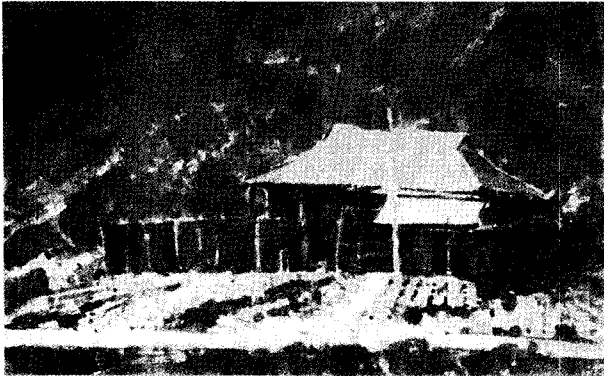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1940년대 표준설계도서

농어촌경관주택 기본 방향

농어촌경관주택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방향

이 소위 양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도입기 서양건축의 표피적인 수용이라고 생각되는 점과 후에 아파트 평면이 무분별하게 주택의 평면으로 재구성되었다는 반성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평면과 공간구성, 구조방식, 지붕형식 등을 새로운 농촌주택에서 접목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아직도 농촌 마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목조의 구조와 평면의 주택에, 초가이었던 지붕을 슬레이트나 철판 기와로 개량한 전형적인 주택들과 어울리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농촌마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봉화 반야 풍경_이관직 작



〈그림 5〉 관매도 풍경_이관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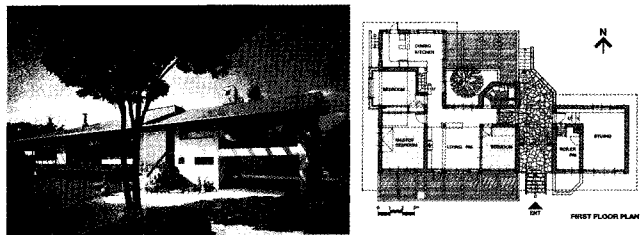
유형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건축 : 농촌주택의 표준설계도는 집단적인 단지구성이나 개발이 아니며, 개별 건축주를 위한 것도 아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즉 유형화를 전제한다. 또한 유형화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의 평형처럼 면적 기본 유형이 아니라 농촌 거주 유형 분석을 통한 구성기본의 유형이어야 한다.

한옥의 전통적인 주거에서 발전된 신한옥개념의 주택 : 우리의 한옥의 전통에는 수백 년 이상의 자연과 사람과 생활이 그 안에 용해되어 있다. 농촌은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가 전통적인 구조 방식과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둥과 창호와 대청마루 중심 평면의 주택을 개조하여 살고 있다. 전통적인 평면과 건축형식의 장점과 현대적인 주거를 반영한 미래의 새로운 주택을 이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 주택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한 필요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식 구조의 장점을 통하여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변형과 조절이 용이한 건물이어야 한다.

환경의 조절과 조형이 조화된 건축 : 친환경적인 설계와 대체 에너지의 사용은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지구인의 공동의 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효율과 비용의 문제와 형태적인 조화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건축은 구법과 형태,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전통적인 장점과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개념을 조화롭게 건축적인 형태와 접목시켜야 한다.

류춘수 선생의 이공건축은 삼하리 주택이나 부암동주택, 중심서원, 남한산성주택 등의 주택 설계를 통해서 한국적인 공간, 구법, 형태를 현대 건축으로 실험하여 왔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설계담당자로서 필자는 오랫동안 이공건축에서의 설계 경험을 토대로 이번 농촌주택표준설계 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이번 기회가 한국적인 현대 주택을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그림 6〉 삼하리 주택

농촌경관주택의 건축계획

〈구조와 구조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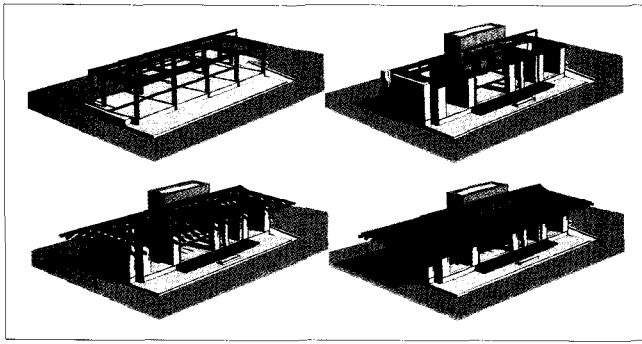
농촌경관주택의 건축계획은 공간구성과 형태구성에 있어서 한국적인 건축 특이 요소가 관심이 되고 있는 한옥의 장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보급형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내용의 중심이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둥식 구조를 채택한다. 기둥식 구조는 공간을 일정한 기본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면서도 벽식 구조에 비해서 확장성과 가변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구조 부재의 재료에 있어서 기둥과 도리와 대들보는 스틸파이프로 설계했다. 목구조를 기본적으로 검토했으나 공사비의 문제와 숙련된 대목수를 수급하여 공사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철골작업이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천년한옥 등의 브랜드화된 한옥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옥의 목조 구법을 그대로 농촌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시공업체의 수급과 자재의 확보 등의 경제적 문제가 아직은 많다.

〈평면과 홀집〉

평면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홀집의 개념이다. 규모가 작은 경우 체를 분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기본 모듈을 지키면서 모든 방들을 단일 기둥 간격으로 구성하였다.

전통적인 우리의 건축에서 궁궐이나 대형 사찰과 같은 대형공간과 많은 방들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3방이나 4방으로 구성된다. 한옥의 경우 일자집, ㄴ자집, ㄷ자집의 선형구성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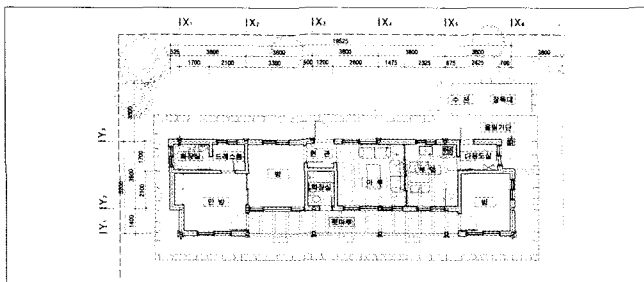
(그림 7) 조형구성단계

이다. 난방의 문제를 현대적인 단열과 밀폐식 창호로 보완하고 대부분의 평면을 홑벽으로 구성하였다. 환기와 채광의 기능적 장점은 물론, 농촌에서 대청 중심의 평면은 홑벽의 평면구성의 장점에 기인한다.

일제시대 때에 건축가 박길용은 그 당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소위 문화주택이라 평면구성을 주장한다. 일본식의 주택에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주장에 따라 당시 경성에 많은 개량화된(?) 문화주택이 보급되었다. 이 문화주택(집중식 배치주택)은 겹집 혹은 내부 복도식 구성을 하고 있고 현관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 지금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현관의 원형이 아닌가 한다. (1933, 박길용, 재래식주거개선에 대하여- 2008, 손영민, 한국근대도시주거 평면변천에 주거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우리의 주택에서는 외부 공간 즉 마당은 농촌 생활의 중심이고 마당은 대청마루와 직접 면한다. 우리의 마루는 주택의 열린 입구이다.

이번 농촌 주택에서는 평면 구성에 있어서 마루 진입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현관은 일종의 뒷문으로서 겨울철에 제한적인 사용을 위한 공간으로 보조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8) 평면도

〈처마와 서까래〉

지붕 구성을 위한 구성 부재로서 서까래는 전통적인 구법의 핵심이고 아직까지도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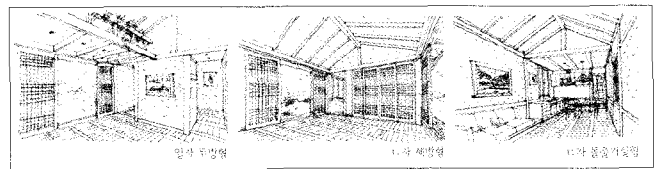
근대화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 잃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택, 바로 집에 대한 존중이다. 마을에서 집을 짓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었다. 모두가 품앗이를 하고 기술적인 조언과 역사적인 고증에 참여해서 집을 짓는다. 위치와 방위를 잡는 지관이 참여하고, 성주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집의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영험한 귀신들에 고수례를 한다. 재목을 구하고 대목과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고 등등.

산세와 전망을 우리 선조들만큼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싶다. 그

런 것이 한 채, 두 채, 산을 배경으로 웅기 쫘기 모여 살게 되면서 전통적인 마을의 경관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시골은 불나면 그 연기로 사람이 질식되는 싸구려 단열재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로 이틀이면 집이며 공장이며 창고를 다 지어버린다. 그러나 집은 문화적인 표현이며 그것들이 모여서 마을의 모습과 품격을 만들고 기분 좋은 풍광과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장소를 만든다.

이번 용역에서 서까래와 처마는 구법의 중요성을 표현하면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표준도면에 포함된 것이다.

지붕의 중요한 구조재인 목조의 서까래는 마루와 같은 주택공용공간에서는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서 연등천정으로서 서까래의 구조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그에 맞추어서 내부의 인테리어도 한옥을 기본으로 한 공간과 부재로 구성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9) 실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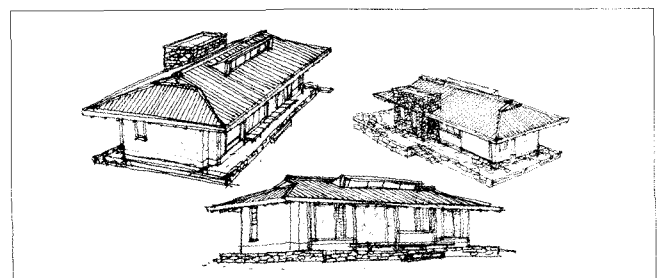
〈경사지붕과 합각지붕〉

주택에서 입면 즉 외관의 기둥의 표현이 농촌 경관 주택의 중요한 조형 요소이지만 전통적인 물매를 가진 경사지붕의 조형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모와 건물의 폭에 따라 전통적인 건물의 지붕의 물매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8 정도의 물매를 자료를 통해서 찾았다.

지붕의 끝부분에는 나무가 외부로 드러난 수평홍룡을 달았다.

또한 이번 표준도에서는 앞뒤로 물매가 있는 박공지붕과 사면이 모두 물매있는 합각지붕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현대 주택에서 합각지붕은 좀처럼 조형미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이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많은 슬레이트나 철판 지붕의 개량 주택은 대부분 합각지붕으로 되어있고 그 지붕의 균집이 우리 농촌의 풍광이다. 새로 지어지는 표준도를 활용한 주택이 하나 둘씩 그 마을에 보급되더라도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경사지붕의 단면상 내부 공간은 일부 유형의 경우 다락방을 설치하고 공간의 활용과 채광을 위하여 들창을 설치했다.



(그림 10) 외관 스케치

〈절충식 지붕—평지붕과 경사지붕의 조합〉

합각지붕을 가지고 현대 주택의 조형을 만드는 일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평지붕을 일부 도입하는 문제였다. 혹시 마당이 좁고 작업장이나 건조장을 따로 공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농촌주택에서 지붕을

단순히 조형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경관을 중요시하는 농촌주택으로서 평지붕의 적용은 그 조형적인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계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었지만 일부 유형에서 적용하는 정도로 정리했다. 평지붕의 부분은 작업장, 건조장, 장독대, 조망, 휴식 등의 장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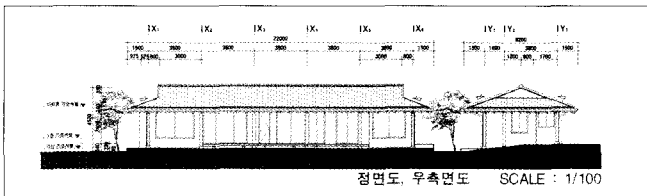
〈화장실과 부엌의 실내의 동시 접근〉

화장실과 부엌은 이미 현대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완전한 입식의 내부로 계획했다. 일부 평면에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과 부엌이 되도록 계획했다. 귀촌 여가형 주택과 취미 생활을 위주로 하는 농촌 주택이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농가의 경우, 외부 일을 하다가 바로 실내로 연결되도록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반영하였다.

〈벽체 재료와 모듈의 문제〉

가구식 구조의 주택으로 벽은 구조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내부와 외부를 경계하는 구성체로 공법이 쉽고, 경제적이고, 견고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이번 표준 주택에서는 그러한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인치 시멘트블록을 주된 외벽 재료로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기둥의 간격 즉 모듈도 3,000mm, 3,400mm, 3,800mm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다.

400mm의 블록 크기의 배수에 기둥 크기인 200mm가 포함된 치수이다. 단면 치수도 기본적으로 블록 치수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11〉 입면도

기본형과 24유형의 구성

24 유형으로 구성된 2009농어촌경관주택 표준도는 정부에서 농촌 주택 신축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활용되도록 가급적 연면적 100㎡ 이하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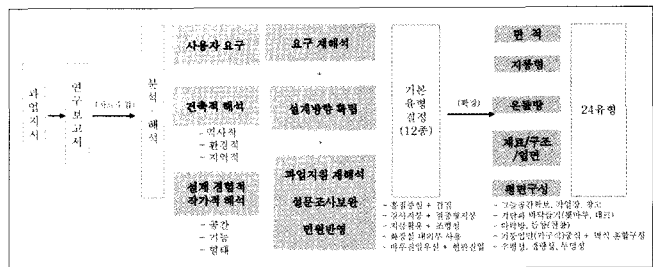
평면 유형의 기본형은 일자두방마루진입팔작지붕형이다. 이름이 조

금 길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히 면적 자체가 유형의 이름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실제로 평면과 조형의 특성을 유형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택 전면에 외부형 뒷마루가 공간을 연결하고 중심에 마루와 부엌이 있어서 좌우의 두 방을 연결한다. 전면은 3,800mm의 4칸으로 되어있고 측면은 4,200mm이 평면 폭으로서 4량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의 확장과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확장되어 일자세방집이 구성된다. 또한 전면으로 돌출되는 ㄱ자집과 후면으로 돌출되는 ㄴ자집으로 확장된다.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모자집과 채분리형이 구성된다.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온실부착형이 있고, 복층형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또한 추후 연립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유형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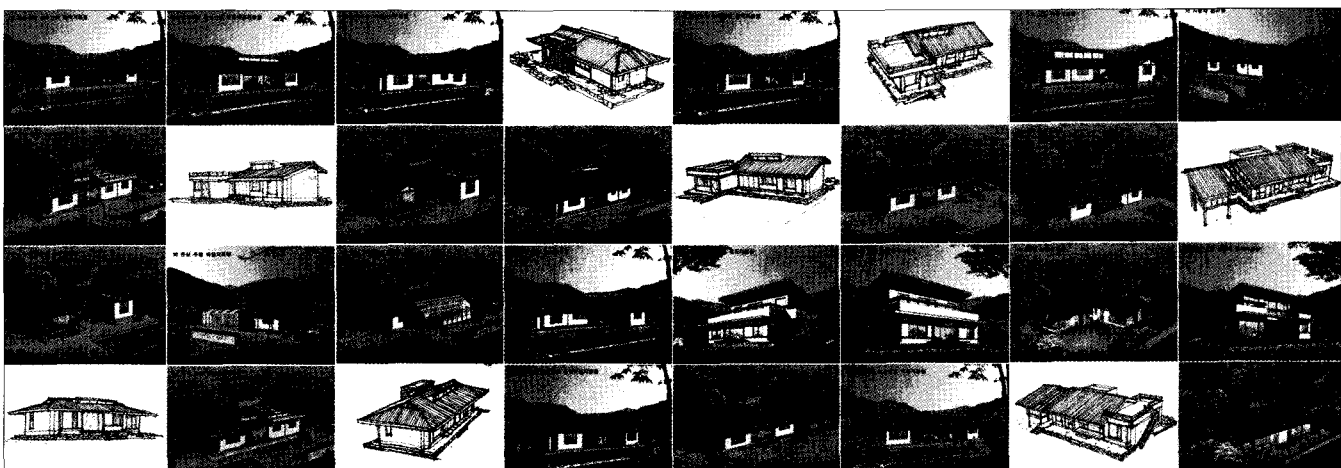
농촌경관주택은 표준도의 작성과 공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구비해 놓는 것으로 그리 쉽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건설과정에서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업화주택의 단계를 거치면서 표준화는 물론 제조 생산의 단계와 시공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지역별로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그림 12〉 24유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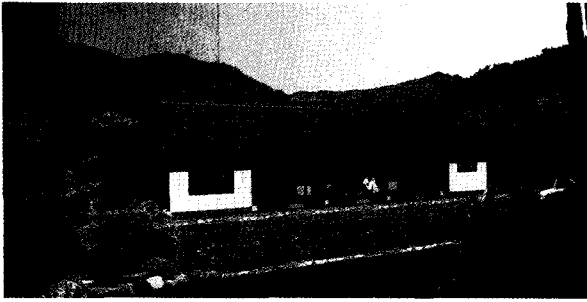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주택의 보급과 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연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전라남도의 현대적인 한옥 보급사례가 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표준도를 잘 연구하여 작성하고, 경제적인 가격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사용자들의 의견과 문제점이 다시 다음 표준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도 확보해야 한다. 농촌 경관을 위해서는 좋은 표준도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의 농촌 경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과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은 곳, 가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곳, 주민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 작업이 그런 과정에 일조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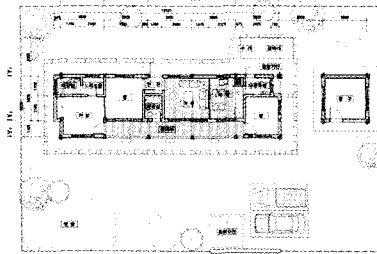
〈그림 13〉 전체 투시도

05 일차 세방 마루진입 팔작지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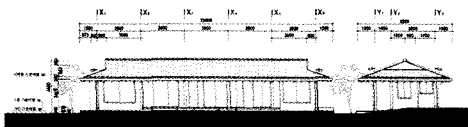


건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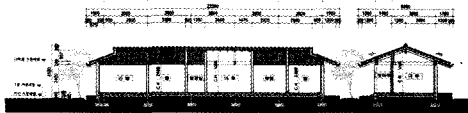
- 면적 : 114.04㎡
- 지상층 : 99.60㎡
- 높이 : 4.4m
- 건축면적 : 114.04㎡
- 방정결마집
- 기둥보임마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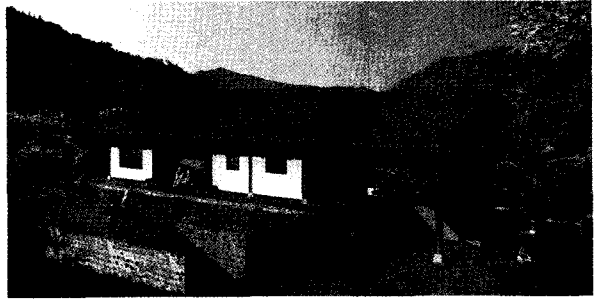


횡단면도, 중앙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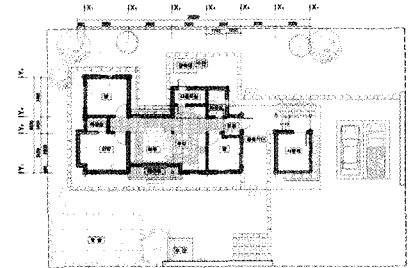
〈그림 14〉 일차세방마루진입팔작지붕형

16 사랑채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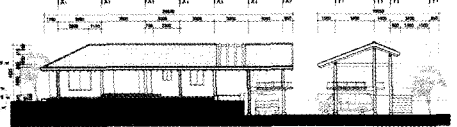


건축 개요

- 면적 : 100.61㎡
- 지상층 : 100.61㎡
- 방정결마집
- 기둥보임마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중앙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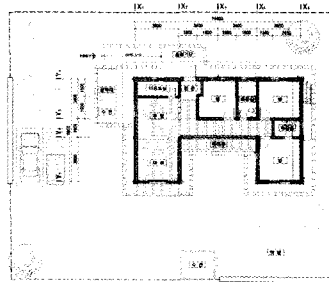
〈그림 16〉 사랑채 분리형

12 다자 돌출거실 팔작지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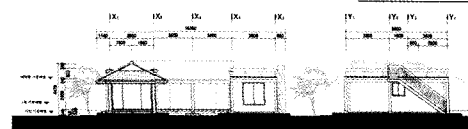


건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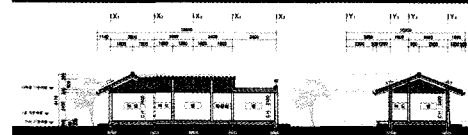
- 면적 : 99.80㎡
- 지상층 : 99.80㎡
- 방정결마집 + 외양면마집
- 기둥보임마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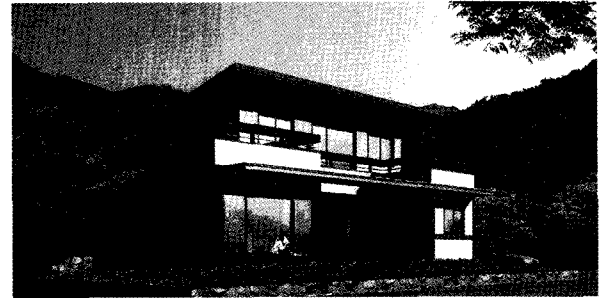


횡단면도, 중앙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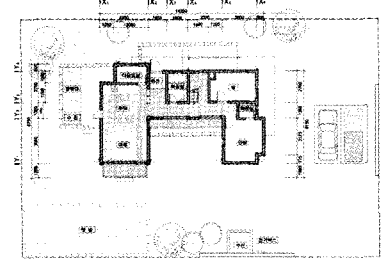
〈그림 15〉 다자돌출거실팔작지붕형

20 복층 다자 외물매경사지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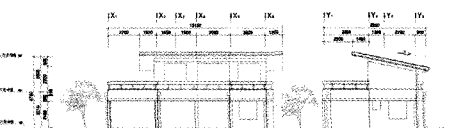


건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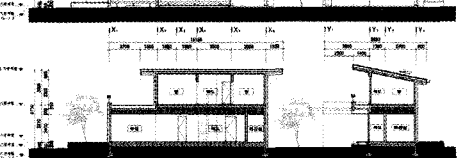
- 면적 : 120.03㎡
- 지상층 : 107.60㎡
- 지상층 : 12.43㎡
- 방정결마집
- 기둥보임마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중앙면도



〈그림 17〉 복층 다자외물매경사지붕형